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티엘아이(062860)

반도체/반도체장비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주)

작성자

이정어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티엘아이(062860)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선도 기업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김달수
설립일자	1998년 10월 28일
상장일자	2006년 7월 2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주요제품	Timing Controller 외

시세정보(2021/09/08 기준)

현재가(원)	7,2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14
발행주식수	9,872,720
52주 최고가(원)	17,000
52주 최저가(원)	6,360
외국인지분율	1.03%
주요주주	김달수

■ 고성능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 제조 선도기업

티엘아이(이하 '동사')는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핵심 소자인 T-CON(Timing Controller)과 DDI(Display Driver IC) 등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이고, 다양한 ASIC 설계를 통해 축적된 SoC 및 아날로그 개발 기술 등을 바탕으로 FPD(Flat Panel Display, 평판 디스플레이)의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스플레이 분야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국산화 기술 보유

동사는 멀티미디어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및 신호처리 기술 등 우수한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고, 경쟁력 있는 고사양, 고성능의 디스플레이용 IC 제품을 개발하며 다양한 핵심 IP(Intellectual Property, 반도체 설계자산)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사의 제품에 따라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설계 능력에 따라 개발 기간 및 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동사는 우수한 설계 인력 확보를 기반으로 고성능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매출 증대를 위한 제품 다각화 전략 마련

동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OLED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개발을 통해 실내용 LED 디스플레이 및 LED Backlight IT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최근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킨 공통 캐소드 타입 TL3103UD를 개발 완료하는 등 제품 다각화 및 신규사업 확장을 통해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485	(27.9)	(190)	(39.2)	(207)	(42.6)	(26.5)	(22.7)	13.5	(2,094)	8,505	(2.1)	0.5
2019	420	(13.4)	3	0.6	30	7.3	4.8	3.8	6.5	337	9,516	14.8	0.5
2020	367	(12.5)	(79)	(21.4)	(73)	(20.0)	(8.9)	(9.5)	11.3	(615)	8,565	(13.3)	1.0

기업경쟁력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국산화

■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기술 확보

SoC 설계

영상신호처리

아날로그IP

지적재산권

핵심경쟁력

■ 디스플레이 구동용 T-CON 및 DDI 국산화 기술 확보

-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분야 특허등록 90건 이상
-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및 디스플레이용 구동 IC 설계에 필요한 다수의 IP 확보

■ 차세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개발

-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등록 다수 보유
- 실내용 미세 피치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LED 드라이버 IC 개발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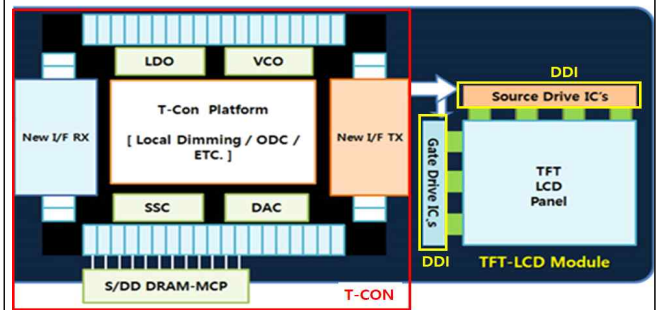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미세공정 및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통한 제품 소형화
 - 동일한 반도체용 웨이퍼 상에서 더 많은 칩을 집적하여 제조
 - 제품 단가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다양한 IP 보유 통한 고객사의 원활한 대응 가능
 -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특정 성능을 개선한 반도체 설계 및 제작 가능

주요 제품

■ T-CON 및 DDI 블록도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 당사는 홈페이지에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내부환경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 중으로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ESG관심이 높아 적극 경영활동에 반영함.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및 감사 비중이 30% 미만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전문기업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용 핵심 반도체 등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 개요 및 사업 현황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동작시키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등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반도체인 T-CON과 DDI 등을 설계해서 생산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7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달수 대표이사가 창업 이후 경영총괄 담당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해 경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높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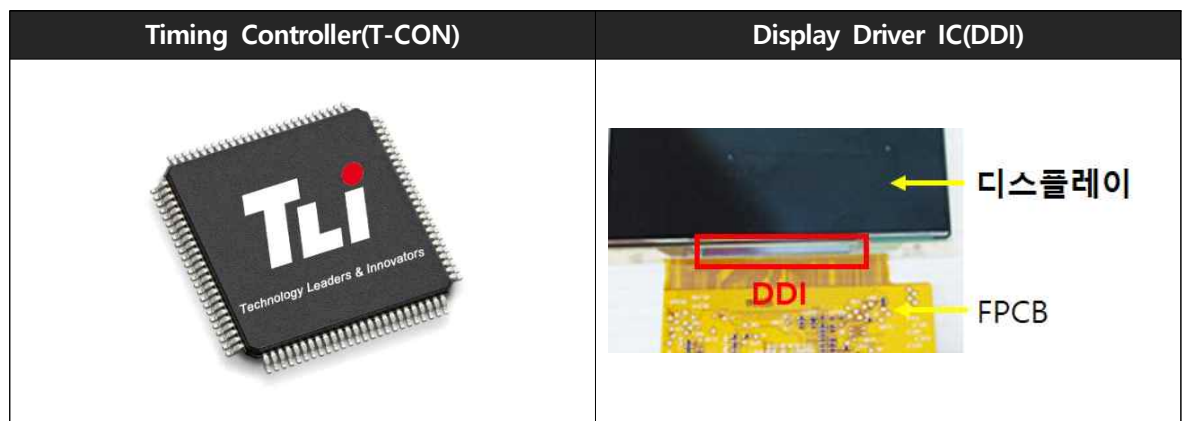
■ 보유기술 및 주요제품

동사는 창업 이후 MP3 디코딩 칩을 상용화시키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2002년부터 디스플레이용 IC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기술역량을 성장시키고 있다. 1999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아 T-CON, DDI, 마이크로 LED 구동칩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의 반도체 IP를 설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어 T-CON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T-CON 및 DDI에 고속의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T-CON 개발을 위한 칩 제작 공정을 미세공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고속 인터페이스 IP 등을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다. DDI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정에서 더 빠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회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아날로그 IP를 개발하였고, 양산시 높은 수율과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회로 설계 노하우를 적용했다. 일례로, 40nm/28nm급의 미세공정 IP를 개발하였으며, 미세공정을 통해 초고화질인 8K 및 OLED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고집적화, 저전력 및 고속 동작을 지원하는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DDI의 Source Driver IC로 연결되는 출력 인터페이스 IP를 기존의 3Gbps에서 6Gbps로 상향해서 개발하여, 출력 인터페이스의 고속 동작에 필요한 출력포트 수를 줄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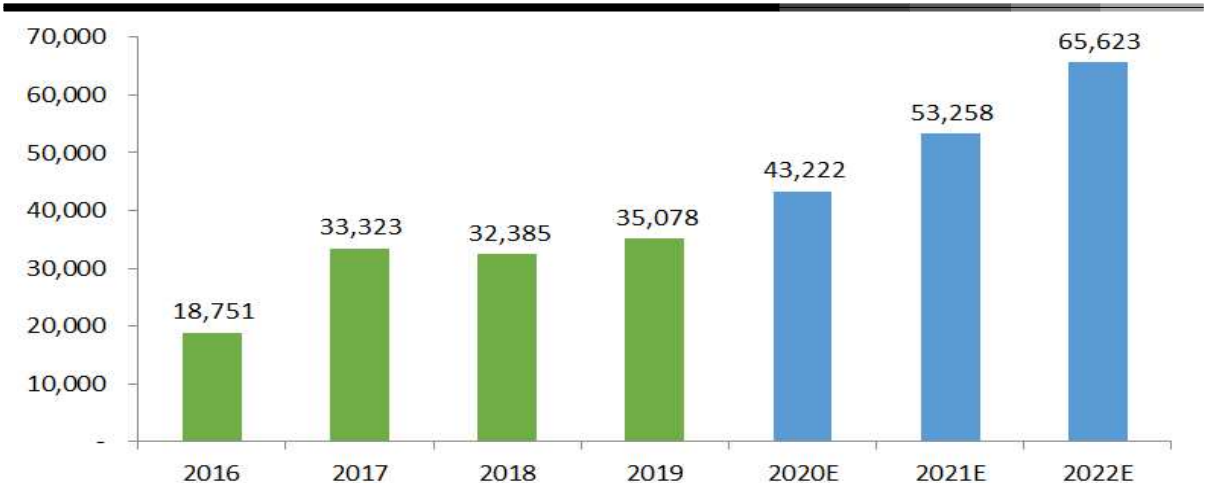
*출처: IR 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시장 현황

동사의 주요제품인 DDI 와 T-CON 은 휴대전화, TV, 디지털카메라 등의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집적회로로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출력할 영상신호를 받아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전압, 전류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필수 구성요소이다. DDI는 TV,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는 중대형 DDI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기기의 소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는 모바일용 DDI로 구분된다. 디스플레이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LCD용, OLED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DDI와 T-CON은 초기에 많은 투자와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여 시장진입장벽이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DDI 출하금액은 2016년 1조 8,751억 원에서 2019년 3조 5,078억 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하였으며, 시장환경, 업황 등을 감안하여 이후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할 시 2022년에는 6조 5,62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스마트폰 및 대형 TV 수요 증가, 전광판/경관조명용 DDI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2. 국내 DDI 시장규모(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사업별 영업 전략

동사의 주요제품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에 핵심역할을 하는 반도체로써,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 트렌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쟁사보다 앞서서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인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비롯해서, 디지털사 이니지, TV 제조사들과 제품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검증받아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동 방식의 제품을 개발하여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있다. 신제품인 마이크로 LED 구동 칩을 통해 응용분야를 더욱 확대해서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기술사업 분석

동사는 자체 보유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설계 기술을 토대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 및 IP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핵심IP들의 설계구조가 단순화되고,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전압과 전자계 간섭현상 등을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ESD(Electrostatic Discharge) 및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특성을 향상시킨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감소된 레이아웃 면적과 전력 소모에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설계기술을 확보하여 동일한 반도체용 웨이퍼 상에서 더 많은 칩을 집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수율의 개선을 통해 제품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표 1. 제품별 매출 규모(2019, 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품목	2019년 매출액	2020년 매출액
제조	Timing Controller(T-CON)	25,018	16,128
	Display Driver IC(DDI)	11,673	16,949
	기타	1,981	1,632
합계		38,672	34,709

출처: 사업보고서(2019, 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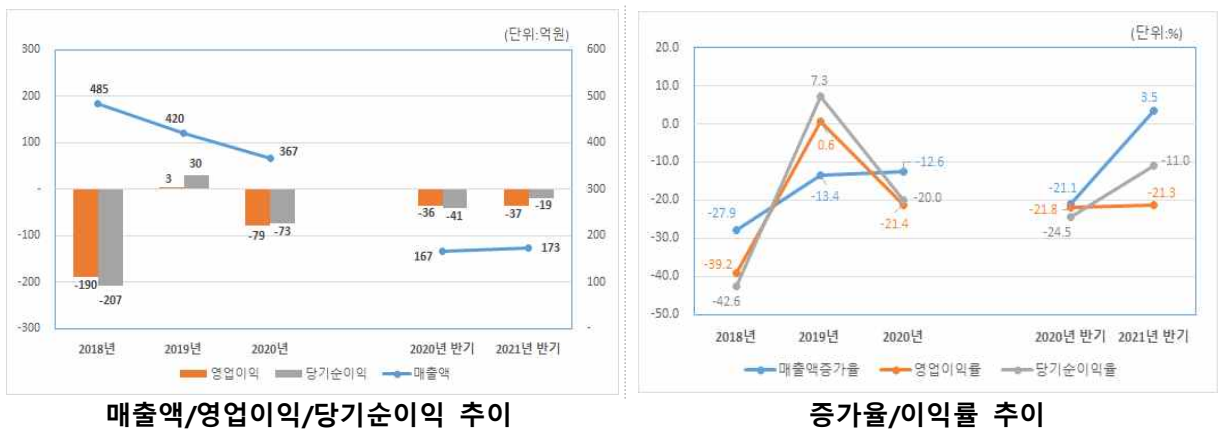
LCD 패널의 핵심부품 설계, 제조업체로 최근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적자 지속

동사는 자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LCD panel의 핵심 IC인 Timing Controller와 LCD Driver IC를 설계, 생산, 판매를 통해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전방 TV시장의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상반기 매출은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0년 TV시장의 LCD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매출 감소 지속

전방산업인 TV시장의 LCD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2020년 연결 매출은 전년대비 12.6% 감소한 367억원을 실현하였다. 이 중 LCD Driver IC 매출이 169억원으로 전체 매출대비 48.8%를 보였으며, 뒤이어 Timing Controller 매출 161억원(전체 매출대비 46.5%), 임대료 외 기타 매출 16억원(전체 매출대비 4.7%)으로 최근 LCD Driver IC 매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3.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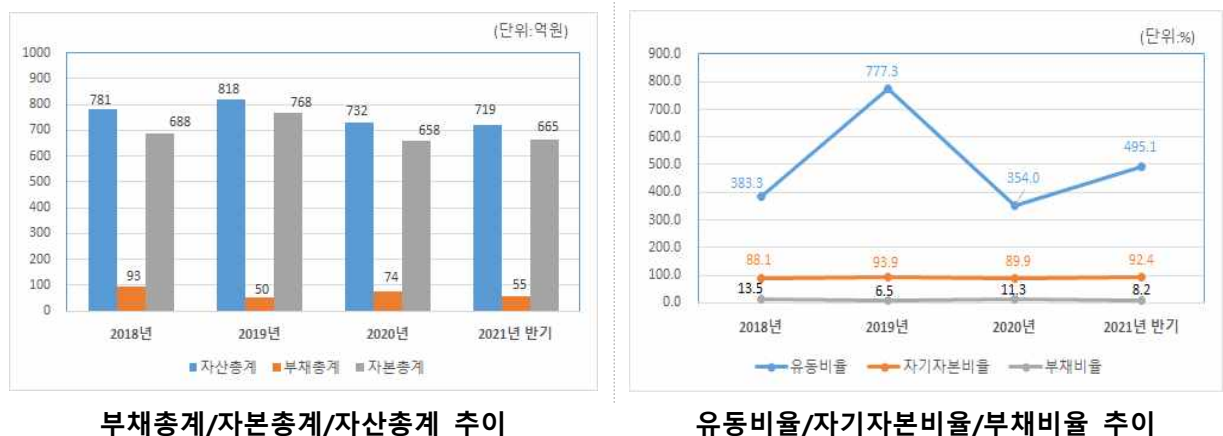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그림 4.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2020년까지 매출 감소한 가운데 연구개발비 확대되면서 적자전환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8년 485억원(-27.9% YoY), 2019년 420억원(-13.4% YoY), 2020년 367억원(-12.6% YoY)으로 최근 매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전방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성숙기에 진입하여 수요 둔화, 중국발 공급과잉 등 저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동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Signage 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u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매출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uLED Display Driver 제품군을 비롯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로 인건비, 연구개발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21.4%, 매출액순이익률 -20.0%를 보이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적자 전환하였다.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019년 14.7%에서 2020년 20.7%로 증가하였고 업계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 2021년 상반기 매출 소폭 회복되었으나 적자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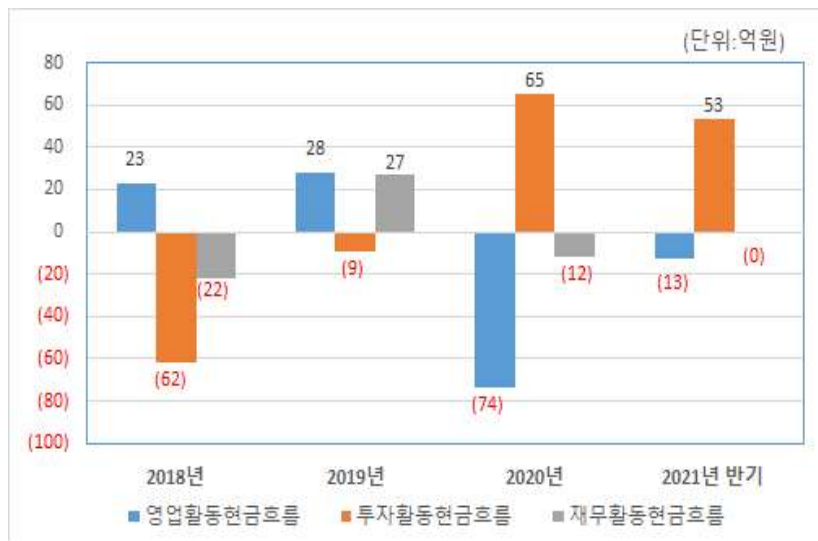
2021년 디스플레이 산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시장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TV, IT 수요의 확대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동사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173억 원을 시현하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 연구개발비 부담의 지속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21.3%, 매출액순이익률 -11.0%를 보이며 손실폭은 다소 완화되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1년 반기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8.2%, 자기자본비율 92.4%, 유동비율 495.1%, 차입금의존도 0.1%를 기록하며 순손실 지속에도 기존 누적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자기자본비율이 90%대에 달하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무차입 수준의 우량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2020년, 2021년 상반기 순손실로 인해 운전자금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자금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

동사는 2020년 연결기준 순손실 발생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의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매도가능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처분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충당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전반적인 자금흐름이 저하되었다. 2021년 상반기에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충당하는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보유중인 현금 및 금융자산이 풍부한 편으로 재무적 융통성이 양호하여 실질 자금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 출처: Kisvalue (2021.08.)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기술 통한 증장기 성장 역량 확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주요 사업 이슈

동사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에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T-CON과 DDI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세공정을 적용한 IP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최적화된 레이아웃 설계 기술을 통해 저전력 및 소형화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반도체의 크기를 축소 시켜서 동일한 웨이퍼 상에 더 많은 칩을 집적하여 제작하고 있고, 지속적인 수율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량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EMC 및 ESD 테스트를 필수로 수행해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와 오랜 기간 동안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20년 이상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제조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실내용 디지털사이니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제조사,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사와 협업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년간의 제품 양산 이력과 우수한 IP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구동 칩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매출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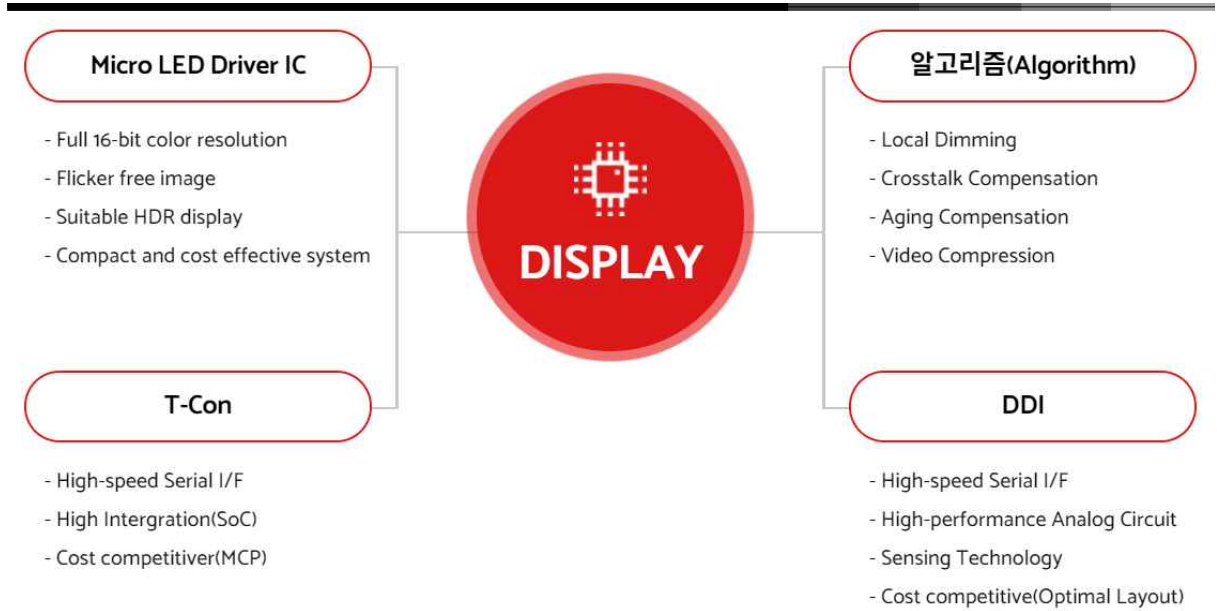
동사는 경쟁사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해마다 대규모의 R&D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주력 제품군인 T-CON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nm/28nm급의 미세공정 IP를 개발하여 8K(UHD)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및 OLED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집적화, 저전력 및 고속 동작 가능한 칩을 제작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Source Driver IC로 연결되는 출력 인터페이스 IP를 T-CON의 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3Gbps급에서 6Gbps급으로 상향하여 개발 완료하였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사이니지용으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구동칩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2020년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구동보드용 드라이버 IC를 공통 애노드 타입으로 개발한 기술력을 토대로 최근에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킨 공통 캐소드 타입 TL3103UD를 개발 완료하였다.

동사의 제품은 기존 경쟁사 대비 동일한 디스플레이 크기를 구동시키기 위해 더 적은 수의 칩을 사용해도 되도록 개발하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자인 최적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회로 설계를 단순화해서 인쇄회로기판의 제조 원가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디지털 신호크기를 변조하여 아날로그 신호와 유사하게 생성하는 펄스폭변조(PWM,Pulse Width Modulation)기술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왜곡 없는 고품질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ED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인 전자 방해잡음(EMI)도 최소화하여 플리커(깜빡임) 현상을 개선하고 주변 LED 간섭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즉, 경쟁사 제품보다 더 적은 숫자로 디스플레이의 영상신호를 제어할 수 있고, 플리커 현상 개선 및 제품의 단가 절감,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음에 따라 국내외 디스플레이 제조사와 협업하여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내 마이크로 LED 디지털사이니지 제조사와 LED 모듈 제조사,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에 샘플을 공급, 제품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 양산을 시작해 내년에 IC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주요 제품군의 요소기술



출처: IR 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에게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 등이 있다.

그림 7. ESG 개념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년),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현재 평가기관별 ESG 지표의 세부항목이 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등급 편차가 존재하여 평가대상인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지표를 마련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ESG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S, A+, A, B+, B, C, D 이렇게 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가 포함된 반도체 제조업 중 일부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ESG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년도
삼성전자	005930	B	A	A+	C	2020
SK하이닉스	000660	A	A	A+	A	2020
서울반도체	046890	C	B	B+	C	2020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년),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20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1명, 여성 근로자는 16명 등 총 70명 이상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자재협력등록 사업 분야별 협력사가 부족하거나 지역 업체가 필요할 경우 연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격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등록업체를 선정하는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부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제조	남	56	-	56
	여	15	1	16
합계		71	1	72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지배구조 부문은 정관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제23기)에 투표제를 실시한 이력이 있고, 총 9명의 경영진(이사 8명, 감사 1명) 중 1명의 사외이사, 1명의 외부감사를 보유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30% 미만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정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함을 정함으로써 이사 선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 지분 표를 공시함으로써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목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목표 등을 수립하였다. 국제 규격에 의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환경개선, 위험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폐수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시설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오염 관련 정책적 규제 확대와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속 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고객과 주주 가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